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영농철 대비 "저수율 90%까지 끌어 올릴 것"

[박제철]

평균 저수율 65%...예기치 않은 가뭄 선제 대응
이건국 지사장 "영농활동 지장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가 올해 안정적 영농환경 구축 및 영농기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저수지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정읍지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가 올해 안정적 영농환경 구축 및 영농기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저수지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현재 정읍지사 관내 저수지 29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6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읍지사는 올해 영농급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기치 않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수 저류를 통해 저수지 농업용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읍지사는 정읍천 공평양수장을 가동해 해당저수지와 만수저수지에 저류 담수하는 방식으로, 올해 영농 이전까지 저수율 90% 이상 확보로 농업용수 공급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건국 지사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농업용수 급배수 계획을 바탕으로 용수가 필요한 180여일 동안 정읍시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물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인 영농급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